기존 동판기와보다 10배나 두꺼운 동주물기와는
한번 시공으로 목재전물의 수명을 300년 이상 연장합니다
대원동주물기와 ☎(02)739-8745/735-2344

현대불교

55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 080 - 023 - 4000

명예회장 노대환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3월 15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장아함경)

법회 안내

국군중앙법당 (02)796-0230
화요법회 매주 화 오전11시40분
사병법회 매주 수 오후6시30분
인등기도 매월 1일(음)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일요법회 일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일 오전10시30분

금선사 (02)981-8078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기원정사 (02)737-0238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가족법회 매월 둘째 일 낮12시
학생법회 매월 둘째 일 낮12시

대구한마음선원(053)426-2779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중·고등부법회 일 오후5시
청년부법회 수 오후7시30분
일반신도법회 매월 둘째 일 오전10시30분
거사림법회 목 오후7시30분
금요법회 금 오전10시30분

상혁 삼장사 (0397)73-2487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2시
학생법회 매주 일 오후1시
청년부법회 매주 금 오후8시
일반신도법회 일 오전10시30분

이리 관음사(0653)54-1578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학생부법회 매주 토 오후2시30분
청년부법회 매주 수 오후7시
일반신도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합창부법회 매주 수 오후2시

제주 죽림정사(064)56-1345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주부경전읽기 매주 화 오후2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법공양판 발행
타블로이드 8면

불교 신용협동조합 확산

현재 전국 12곳 개설…수익금 불사 지원

금융·유통·문화강좌등 불자 편의 제공

조계종 7월 설립…본·말사 확대 계획도

서민 금융기관으로 각광 받고있는 신용협동조합이 불교계에도 확산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사업부(부장 설송)는 금년초 불교신협 설립 신청서를 서울시 신용협동조합연합회에 제출, 지난달 타당성 조사를 마쳤다. 오는 7월경 설립되는 '조계종 불교신협'은 조계사 신도, 신행단체, 불교용품점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교계 최대규모의 신협으로 수·여신업무 뿐 아니라 구판, 유통사업을 전개하고 수익금으로 불교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조계종은 사업 성과에 따라 신협설립을 지역의 본·말사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앞서 제주 태고종 종무원도 지역불교 경제자립을 위해 지난 9일 '아라신용협동조합(이사장 조성민)'을 개설했다.

현재 불교계는 83년 광주 관음사 신협을 시작으로 서울 청주 광주에 각각 2개씩, 부산 대구 속초 원주 전주 제주에 1개씩 12개의 불교신협이 개설되어 있다. 이들 불교신협은 고유의 금융업무이외에 사찰특산물판매, 시설물 개방, 문화강좌 개설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불자와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신협은 조합원들의 경제자립과 사회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해 상부상조하는 비영리 단체로 지역문화원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어 새로운 포교방편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불교신협의 자산금이 1백억원 미만이어서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전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용화사 주지 양업스님은 "지난해 중창불사를 진행하던중 은행대출이 어려워 불사가 힘들었으나 부산불교신협의 도움으로 무사히 불사를 마치게 되었다"며 "불자들의 경제자립을 위해 불교신협이 지역마다 설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교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교계 재정확충 방안의 하나로 제기되고있는 '불교신용협동조합'은 종단과 지역의 불교연합체를 주축으로 계속 설립될 전망이다. 서울시 신용협동조합연합회에는 매년 10여개의 사찰과 불교관련단체가 신협설립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관계자들은 "신협설립에 앞서 조직정비와 공동유대 범위를 명확히 해야하며 법인화된 단체가 3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3백여명 이상의 잠재 조합원을 확보했을 때 설립이 용이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업무규제 완화방안'을 마련, 대출한도를 높이고 지역조합가입금지 규정을 없애는 등 신협 활성을 유도하고 있어 불교계의 신협설립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엽 기자)

"정관개정, 재산뺏기·법인해체 아니다

문제해결시 특별교구로 지정, 종회 참석허용"

선학원 특위 위원장 법등스님 기자간담회

조계종 선학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법등스님은 지난 6일 교계기자 간담회를 갖고 "선학원에 요구한 정관5개항 개정요구가 거부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선학원이 세속적인 법논리와 조계종의 절차와 관행을 이유로 대화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특위에서 선학원 소속 조계종 스님들을 직접 만나 조계종의 입장을 설명하고 아울러 3월내 실문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관 5개항 개정요구가 무리하다면 양측의 대화로써 선협수용도 가능함을 비친 법등스님은 "조계종의 선학원 정관 일부개정요구는 '재산뺏기'나 '법인 해체'등이 아니라 조계종의 관장하 임을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일 뿐"이라 단언했다.조계종은 종헌 제94조와 사설사암 등록 및 관리법 제 6,7조에 의거 사설사암의 창건주나 그 권리인에게 자치상승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님은 또한 선학원 문제가 양측의 적극적 의지로 원만 해결됐을때 조계종의 '특별교구'로서 지정, 그에 상응하는 권리자분과 종회 참여등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학원소속 조계종 사찰이 약 3백여개로 추산된다고 밝힌 법등스님은 "조계종에 소속된 선학원 스님들의 현황 실태파악에 착수했다"고 말하고 향후 종법에 법인관리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장경판 머리에 이고 "心출가"

불교도 경건주간(8일 출가절과 15일 열반절)을 맞이 전국의 불자들은 출가와 열반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를 벌였다. 사진은 조계사에서 출가절 기념법회후 신도들이 대장경판을 머리에 이고 법계도를 따라 도량을 돌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서원을 올리는 모습.

(박재완 기자)

조계종 '佛放사태' 대책위 구성

총무원, 문책 요구…BBS 사과 방송

불교방송이 지난달 24일 '무명을 밝히고'프로를 통해 '불교방송을 음해하는 검은 세력들에 경고한다'제하의 불교방송 PD협회 성명서를 방송한데 대한 교계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명진)는 '불교방송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사회분과위는 지난 6일 오후 4시 회의를 갖고 '불교방송 대책소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명진스님을 위원에 진관, 각현, 여연, 지만스님을 위촉했다. 이에따라 소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부터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갖고 불교방송이 방송한 PD협회의 성명서 제작 경위와 배경, 신문창간설과 관련한 교계여론 등에 대해 논의하고 '불교방송에 대한 강경 대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소위원회는 불교방송 사태와 관련한 보다 정확한 진상파악을 위해 10일 오후 2시 불교방송 재단이사장 종하스님등 이사로 참여중인 조계종 스님과 제원(BBS 포교위원장) 종훈(기획심의실장)스님등을 출석시켜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에 앞서 총무원에서도 PD 성명의 내용은 '삼보비방 및 방송의 공공성 외면'이라고 지적, 관계자에 대한 강도높은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4일 불교방송측에 전달했다. 이와관련 불교방송은 지난 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명서 관련 직원의 진술을 들었으며 방송위원회의 조치등에 따라 관계자를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전국불교운동연합, 석림동문회, 부천 석왕사신도연합회 등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14면)

한편 불교방송 PD협회는 지난 7일 오후 5시40분 '무명을 밝히고'시간을 통해 지난달 24일의 성명서 방송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목어

"별로 볼 사람도 없는데 관히 오늘 오후 일만 축냈군."

불교텔레비전 개국특집 프로그램 녹화현장에서 어느 출연자가 한 말이다. 방송사에 대한 푸념이 아니다. 시청자들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케이블TV 개국을 예정대로 밀어붙인 종합유선방송 관장부서인 공보처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다.

공보처가 들어야 할 말

3월1일 21개의 케이블TV가 일제히 본방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컨버터보급과 케이블 인입선 설치가 제대로 안돼 전국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가구는 2만1천여 가구뿐이라고 한다.

케이블TV들은 총력을 다해 다양한 개국특집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했을텐데 시청자가 극소수라니 이 얼마나 딱하고 창피한 일인가. 또 손실이 얼마나 클 것인가.

「프로그램 공급사들은 많은 비용을 투입해 만든 프로그램을 몇며 겨자먹기로 시청자도 없는 가운데 방송해 버림으로써 막대한 제작비와 광고비 손실을 입고 있다…정부의 행정관행이 결국 우리사회의 문제들을 양산한다고 하는 점에서도 앞으로는 이런식의 정부빛내기 행태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케이블TV의 부리한 출발을 지적한 어느 일간지 사설의 한 구절이다.

"지금 접수해도 1~2개월은 기다려야 시청할 수 있다는 군요."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왜 개국을 강요했을까요."

안방부처님 모시기를 기다리는 불자들의 이말은 바로 국민의 소리다. 공보처는 한마디 대꾸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지방 주재기자를 찾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전국 불자들의 신행활동을 보다 빠르고 폭넓게 전하기 위하여 지방주재기자를 모집합니다.

◇자격: 다음의 대상 주소지에서 2년이상 거주 35세미만의 불심 돈독한 대졸 남·녀 (경력자 우대)
◇지역: 부산 대구 광주
◇구비서류: 자필이력서 1통(명함판 사진 2매) 주민등록초본 자기소개서(2백자 원고지 5매이내)
◇선발: 서류전형 후 개별통지
◇마감: 1995년 3월 20일
◇보내실곳: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722-4162)

현대불교신문사